

일반 교사와 대학교수의 상담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최근 10년간 연구를 중심으로

Research Trends on Counseling by Teacher and Professor: Focused on the Last 10 Years (2006-2015)

강혜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코리아텍) HRD전문대학원

Hye Young Kang*

Department of Career Counseling, HRD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KOREATECH),
Cheonan 31253, Korea

[요약]

본 연구는 교육전문가로서 초·중·고 일반교사 및 대학교수가 담당해야 할 상담자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최근 10년간 이루어진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 80편의 논문에 대해 연도, 연구주제,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초등학교(60.9%)에 편중되어 있었고, 중학교(15.8%), 고등학교(15.8%), 대학에서의 일반교수 상담(7.5%)은 매우 부족하였다. 둘째, 7개 연구주제별로 보았을 때, 상담에 대한 요구와 실태를 살펴보는 조사연구(73.8%)가 대부분이었고, 주로 석사학위논문(76.3%)으로 진행된 연구였다. 셋째,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연구(91.3%)이고, 질적연구는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 연구의 제한점, 향후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Counselor's role as educator has been considered importantly. This article reviewed research trends on counseling by general teacher and professor who are not professional counselor, over the past decade (2006-2015). 80 studies were analyzed by year, research topics, and analysis method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ies were accomplished continually from 2006 to 2015. The number of studies were mostly about the elementary school (60.9%). Second, the research topics on needs and current state of school (college) counseling were in the majority (73.8%). Third, most of the research (91.3%) used a quantitative statistical analysis method. Implication on the results,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future direction were suggested.

Key Words: Research trends, Counseling, Counselor's role, Teacher, Professor

<http://dx.doi.org/10.14702/JPEE.2016.137>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24 September 2016; **Revised** 7 November 2016

Accepted 11 Nov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E-mail: hy97kang@koreatech.ac.kr

I. 서론

초·중·고·대학에서 학생상담의 중요성은 최근 들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교육전문가로서 일반 교사 및 대학교수의 상담자 역할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학생들은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과정에서 학업, 진로,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겪게 되므로 교사의 상담자 역할은 중요하게 지적되어 왔다[1-3]. 그런데 최근 들어 학교 폭력문제, 진로교육 및 취업지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초·중·고·대학에서 상담전문가에 의한 전문적 상담 외에 일반 교수자에 의한 학생지도와 상담에 대한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다[4,5].

교사의 상담자 역할이 강조되면서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제기되었고, 이는 학교상담 활성화 정책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학교상담은 1950년 전후하여 중앙교육상담소 설치, 교도교사제도 실시를 기점으로 1960년대 한국카운슬러협회 창립, 중등학교 전담 교도교사제 시행을 거쳐 점차 발전되어 왔다. 그러다가 1999년에는 학생의 학교 적응 및 심리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제도를 도입하였고, 최근 2011년에는 진로 진학상담교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진로와 진학영역을 전담하는 교사를 양성·배치하고 있다[6].

이처럼 학교상담은 1950년 전후 교도교사제도 이후, 1999년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와 같은 특정 영역의 상담을 담당하는 교사를 배치함으로써 학교상담을 전문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학교상담에서 일반교사의 상담자 역할은 약화되기보다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2,7]. 학교상담의 실태를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상담의 상당부분이 담임교사와 같은 일반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8,9].

학교상담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을 가리키지만 최근에는 대학에서 일반 교수들의 상담자 역할 역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에서 교수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의 하나로 학생지도 및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4,10], 대학의 상담교수제도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11,12], 또한 대학교수를 위해 발간된 상담 가이드북[13,14] 등을 보면 이러한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대학 교수의 학생지도와 상담에 대한 중요성은 공학교육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공학교육의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인증하는 공학인증프로그램에는 교수들의 학생지도와 상담이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15]. 또한 공대 전공의 특성상, 전공과 학생 개인의 적성이 맞지 않을 경우, 전공에의 부적응 및 이로 인한 정서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16] 공대생에게 상담은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공과대학 여학생 상담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공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수적으로 적고, 대부분 남자교수가 많기 때문에 여학생에 대한 지도와 상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1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학생상담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으며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상담자에 의한 상담뿐 아니라 일반교사 그리고 대학에서의 일반교수들이 교육자로서 담당해야 할 상담자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상담을 전담하는 교사나 교수가 아닌, 일반교사 및 교수에 의한 상담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일반교사 및 교수들이 주로 상담하게 되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파악되어야 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교육장면에서 일반교사 및 대학교수의 상담이 비중 있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비해 일반교사 및 대학교수의 상담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교사 및 대학교수의 상담관련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일반교사 및 대학교수의 상담연구를 촉진하는 토대를 마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고 일반교사 및 대학교수의 상담에 대한 연도별 연구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초·중·고 일반교사 및 대학교수의 상담에 대한 연구 주제별 연구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초·중·고 일반교사 및 대학교수의 상담에 대한 연구방법별 연구 현황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A. 분석대상 검색 및 선정

일반교사의 상담활동에 대한 연구 문헌을 찾아보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상담’, ‘학교’, ‘교사’, ‘교수’ 등의 용어로 검색하였다. 구체적인 검색 절차와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1).



그림 1. 분석대상 검색 및 선정 절차

Fig. 1. Procedure of searching and selecting the analysed studies.

1) 1차 검색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상담'으로 검색 한 후에 '학교'로 '결과 내 재검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1,441편(학위논문 892편, 학술지논문 534편, 연구보고서 15편)이 검색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상담'으로 검색 한 후에 '교사'로 '결과 내 재검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533편(학위논문 304편, 학술지논문 211편, 연구보고서 18편)이 검색되었다(2016년 7월 27일 기준).

2) 2차 검색

1차 검색된 총 1,974편의 연구문헌 제목을 일일이 검토해 가며 일반교사의 상담활동에 대한 연구를 선별하였다.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이 중복된 경우에는 학술지 문헌을 선택하여 494편(학위논문 305편, 학술지논문 170편, 연구보고서 19편)의 연구문헌 목록을 정리하였다.

3) 3차 검색

2차 정리한 문헌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위논문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별로 학교상담 실태나 인식을 조사한 유사한 연구들이 많았고, 이러한 학교상담실태 및 인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최근 연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 간 연구를 선별하여 3차로 231편(학위논문 138편, 학술지논문 85편, 연구보고서 8편)의 연구 목록을 정리하였다.

4) 4차 검색

대학에서의 일반교수 상담에 관한 문헌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교수'로 검색 한 후에 '상담'로 '결과 내 재검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418편(학위논문 52편, 학술지논문 362편, 연구보고서 4편)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418편의 연구문헌 제목을 일일이 검토해가며 대학교수의 상담활동에 대한 연구를 선별하였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학교수의 상담에 관한 연구는 7편이었고, 2006년 이후 연구문헌은 6편뿐이었다(2016년 8월 31일 기준).

5) 5차 검색

1차-3차까지에서 검색된 초·중·고등학교 일반교사 상담관련 연구문헌 231편과 4차 검색에서 추가된 대학교수 상담관련 연구문헌 6편을 포함하여 총 237편(학위논문 138편, 학술지논문 88편, 연구보고서 11편)의 분석대상 연구문헌 목록을 정리하였다. 개별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헌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는 그 문헌을 다시 포

함하여 검색하고 읽으며 내용을 보충해나감으로써 최대한 2006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진행된 일반교사 및 대학교수의 상담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6) 6차 검색

최종적으로 237편의 연구문헌 제목과 초록을 살펴보면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적절한지를 검토하였다. 연구에는 일반교사 상담과 관련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연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어떤 연구를 분석 대상에 최종적으로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고, 연구자와 교육학 전공 교수 1인 및 상담학분야 박사과정생 1인, 총 3인의 논의 하에 다음과 같은 분석대상 세부 기준을 선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이 일반교사의 상담에 대한 직접적 연구 현황을 살펴보려는 것이므로 전문상담교사, 진

로진학상담교사에 대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둘째, 학교상담 관련 연구 중, 교사의 상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담 정책, 체제에 대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셋째, 연구 중에 학교상담 현황에 대한 연구 중에서도 일반적 학교상담 현황이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학교상담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포함하였는데, 문항 안에 일반교사의 상담 현황, 상담자로서의 역할 기대 등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연구 제목 및 초록만 보고 어떠한 연구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연구 원문을 검색하여 살펴보았는데, 이 때 “저자 요청에 의해 [원문보기]가 제공되지 않는 논문” 및 “온라인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연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연구자가 연구를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 ×로 표기하였고, 이렇게 표기한 결과를 다시 분석대상 기준을 의논했던 교수 1인 및 박사과정생 1인에게 검토받아 최종적으로 분석대상 논문 80편(학위논문 61편, 학술지논문 17편, 연구보고서 2편)이 선정되었다(표 1, 그림 2).

표 1. 분석대상

Table 1. Analyzed studies

구분	학위논문	학술지	연구보고서	합계
논문 수 (%)	61 (76.3%)	17 (21.3%)	2 (2.5%)	8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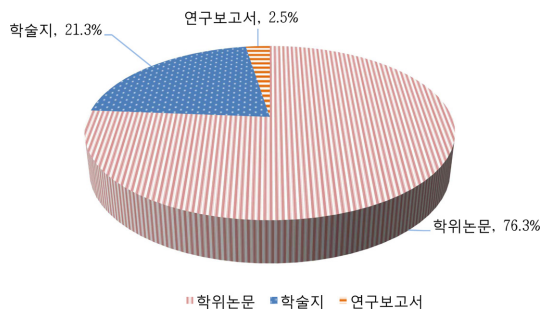


그림 2. 분석대상

Fig. 2. Analyzed studies.

B. 평정 절차

최종 분석대상이 된 연구들의 동향분석을 파악하기 위한 평정 절차는 크게 1) 평정 영역 선정, 2) 연구주제 평정을 위한 범주 분류 및 정의, 3) 평정 및 평정 검수로 진행되었다(그림 3).

1) 평정 영역 선정

평정 영역 선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연구동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상담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분류 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평정 영역에 대해 교육상담 분야 교수 1인과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다. 예를 들면, 「상담학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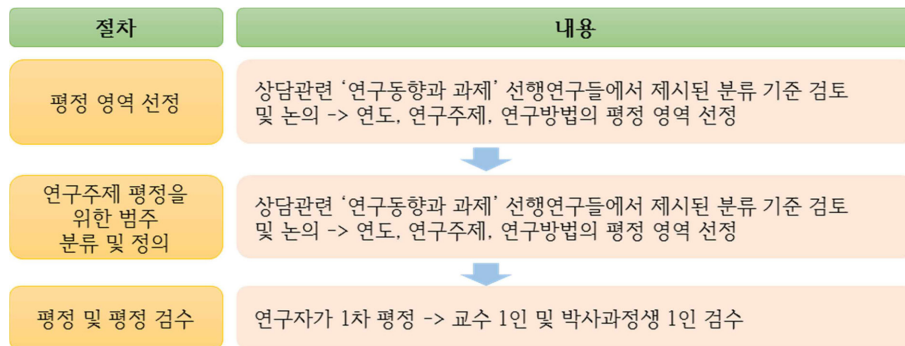


그림 3. 분석대상 평정절차

Fig. 3. Procedure of Rating the analysed studies.

학회지 게재논문을 대상으로 상담학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18]에서는 ‘기초사항(연구자 소속, 출판연도),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통계분석’의 영역으로 평정하였고, 국내 학술지를 연구를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상담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19]에서는 ‘연구주제별, 연구대상별, 연구방법별’ 분류기준을 채택하고 있었다.

살펴본 선행연구는 대부분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 영역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었고, 이러한 영역을 연도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일반 교수자들(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상담관련 연구를 연도, 연구주제, 연구방법 영역에 따라 평정하였다.

2) 연구주제 평정을 위한 범주 분류 및 정의

연구주제의 평정을 위해서는 연구주제 범주를 정하고 그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주제 범주를 정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①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 영역을 참고하여 범주를 정하는 것 ② 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범주를 정하는 것 ③ 현재 진행된 연구주제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다.

상담분야 연구 동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①의 방법을 통해 연구주제의 평정 영역을 정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제시한 상담주제는 매우 광범위하여 본 연구에서 살펴보려는 일반교수자 상담 연구에는 적절하지 않았는데, 이는 일반교수자 연구가 아직 많이 진행되지

않아 앞선 연구주제로 분석할 때 해당되지 않는 연구가 많기 때문이었다. 또한 ②의 방법을 선택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직 일반교수자 상담 연구가 어떠한 주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합의된 사항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③의 방법으로 연구주제 평정 영역을 정하였다. 즉, 연구자가 분석대상 연구문헌들의 제목과 초록을 보면서 연구주제 영역을 구분하였고, 이에 대해 교육상담 분야 교수 1인 및 상담학분야 박사과정생 1인과 여러 차례 논의하며 최종적으로 7개 범주로 확정하였다(표 2).

3) 평정 및 평정 검수

연구의 평정은 연구자가 1차적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교육상담 분야 교수 1인 및 상담학분야 박사과정생 1인이 검수하였다. 평정할 때, 하나의 연구가 2개 영역으로 평정될 때는 0.50로, 3개 영역으로 평정될 때는 0.33으로 계산하였다.

III. 연구결과

A. 연도별 연구 현황

연도별 연구 수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그 수는 매우 적었다. 그리고 진행된 연구의 60.9%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대부분의 연구가 초등학교에서의 일반교사 상담연구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대학에서의 일반교수 상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었다(그림 4).

표 2. 연구주제 범주와 정의

Table 2. Research topic categories and definitions

번호	범주	정의
1	초·중·고교, (특수학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상담에 대한 요구 조사 연구	초·중·고교, (특수학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상담 내실화를 위해 학생, 교사, 교수,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상담자로서의 역할, 기대 등을 조사한 연구
2	초·중·고교, (특수학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상담활동실태 조사 연구	초·중·고교, (특수학교) 학교상담 개선 및 대학에서 일반 교수의 상담 활성화를 위해 학생, 교사, 교수,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상담경험, 상담내용, 상담방법, 상담만족도 등 상담 실태를 조사한 연구
3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도움 요구에 대한 연구	초·중·고교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상담에의 어려움, 컨설팅이선 받고 싶은 문제 등,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지를 살펴본 연구
4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상담과정에 대한 연구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가 진행한 상담에 대해 언어적, 비언어적 상담기술, 개입과정 등 상담과정을 분석한 연구
5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상담성과에 대한 연구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가 진행한 상담에 대해 만족도, 효과 등 상담성과를 분석한 연구
6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 대상 상담관련 변인 연구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상담관련 변인(예: 상담에 대한 기대)에 대해 살펴본 연구
7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교수의 상담교육 자료 개발 연구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에서 일반 교수의 상담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가이드북과 같은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연구

표 3. 연도별 연구현황

Table 3. Research frequency by year 빈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초등학교	6.66	10	8	2.33	1.66	7.66	1.33	5	2	4	48.64 (60.9)
중학교	2.16	2	-	0.33	1.66	1.16	0.33	-	3	2	12.64 (15.8)
고등학교	2.16	1	1	1.33	1.66	2.16	2.33	1	-	-	12.64 (15.8)
대학교	-	3	-	-	1	1	-	-	-	1	6 (7.5)
합계	10.98 (13.7)	16 (20.0)	9 (11.3)	3.99 (5.0)	5.98 (7.5)	11.98 (15.0)	3.99 (5.0)	6 (7.5)	5 (6.3)	7 (8.8)	79.9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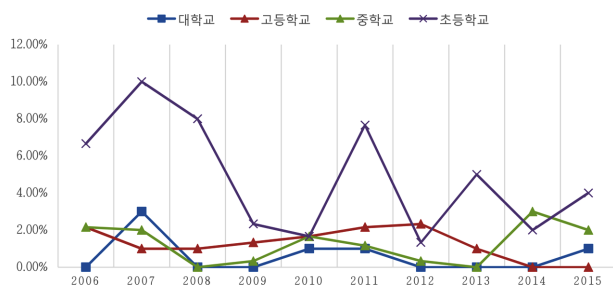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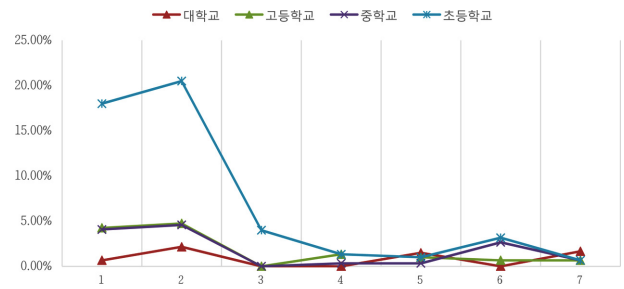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연구현황

Fig. 4. Research frequency by year.

B. 연구주제별 연구 현황

연구주제별 연구현황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관련 요구조사 연구’(40.0%)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1	2	3	4	5	6	7
초·중·고교, (특수학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상담활동실태 조사 연구	초·중·고교, (특수학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상담에 대한 요구 조사 연구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도움 요구에 대한 연구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상담과정에 대한 연구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상담성과에 대한 연구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 대상 상담관련 변인 연구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교수의 상담교육 자료 개발 연구

그림 5. 연구주제 범주별 연구현황

Fig. 5. Research frequency by research topic categories.

표 4. 연구주제 범주별 연구현황

Table 4. Research frequency by research topic categories 빈도(%)

번호	범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합계
1	초·중·고교, (특수학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상담활동실태 조사 연구	18	4.08	4.25	0.66	26.99 (33.8)
2	초·중·고교, (특수학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상담에 대한 요구 조사 연구	20.5	4.58	4.75	2.16	31.99 (40.0)
3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도움 요구에 대한 연구	4	-	-	-	4 (5.0)
4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상담과정에 대한 연구	1.33	0.33	1.33	-	2.99 (3.7)
5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상담성과에 대한 연구	1	0.33	1	1.5	3.83 (4.8)
6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 대상 상담관련 변인 연구	3.16	2.66	0.66	-	6.48 (8.1)
7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교수의 상담교육 자료 개발 연구	0.66	0.66	0.66	1.66	3.64 (4.6)
	합계	48.65 (60.9)	12.64 (15.8)	12.65 (15.8)	5.98 (7.5)	79.92 (100.0)

표 5. 연구출처별 연구주제 현황

연구출처	연구주제							빈도(%)
	1	2	3	4	5	6	7	
학위논문	23.83	27.33	-	1	2.33	5.5	1	60.99 (76.3)
학술지	2.5	4	4	2	1.5	1	2	17 (21.3)
연구보고서	0.66	0.66	-	-	-	-	0.66	1.98 (2.5)
합계	26.99 (33.8)	31.99 (40.0)	4 (5.0)	3 (3.8)	3.83 (4.8)	6.5 (8.1)	3.66 (4.6)	79.9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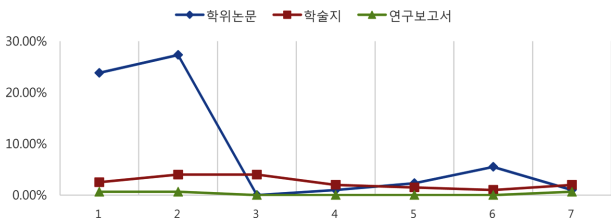


그림 6. 연구출처별 연구주제 현황

Fig. 6. Research topic category frequency by research resources.

은 ‘상담활동 실태조사 연구’(33.8%)의 진행 순으로 나타났다. 7개 연구주제 평정 영역 중에서 상담관련 요구조사와 실태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73.8%로 나타나 지금까지 진행된 일반교사 및 대학교수 상담 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상담에 대한 요구와 실태를 살펴보는 조사연구임을 확인하였다(그림 5). 또한 이러한 조사연구는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부분(석사)학위논문(76.3%)으로 진행된 것이었다(그림 6).

C. 연구방법별 연구현황

연구방법별 현황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연구(91.3%)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빈도분석, 집단 간(예: 학생, 학부모, 교사 간/ 교사의 경력별 집단 간/ 남학생과 여학생 간 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교차분석, t검증, 일원변량분석 등을 실시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질적연구에는 면담을 통해 의견을 정리한 연구, 합의적 질적분석, 현상학적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양적, 질적 혼합연구에는 설문조사와 면담을 병행한 연구, 그리고 개념도 연구가

표 6. 연구방법별 연구현황

논문 수 (%)	연구방법				합계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	
73 (91.3%)	2 (2.50%)	4 (5.00%)	1 (1.3%)	8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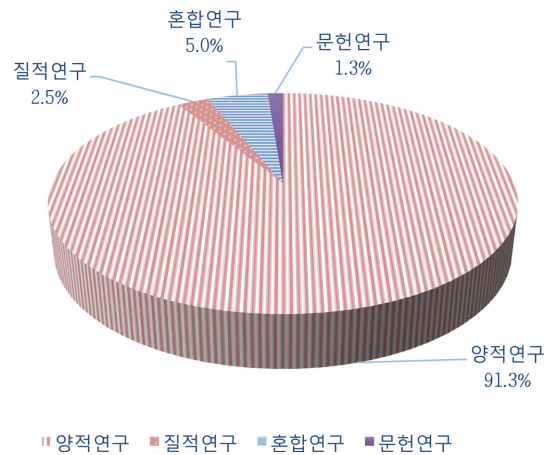


그림 7. 연구방법별 연구현황

Fig. 7. Research frequency by research method.

포함되어 있었다(그림 7). 또한 표 7에서 보는바와 같이 연구 주제 범주별 연구방법을 살펴본 결과, 일반교수자의 도움요구에 대한 연구와 상담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질적연구나 양적, 질적 혼합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8).

IV. 요약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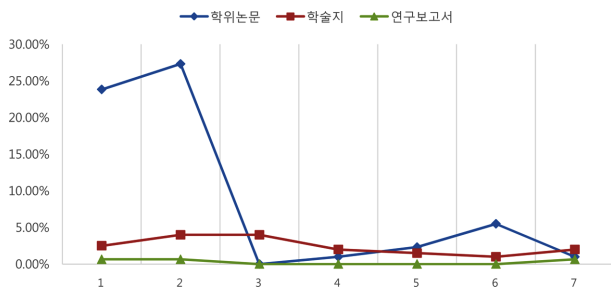
본 연구는 교육의 장에서 교육전문가로서 교사가 담당해야 할 상담자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상담전문가가 아닌, 초·중·고 일반교사 및 대학교수의 상담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간 이루어진 일반교사 및 대학교수의 상담에 대한 국내 연구

표 7. 연구주제 범주별 연구방법 현황

Table 7. Research method frequency by research topic categories 빈도(%)

번호	범주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	합계
1	초·중·고교, (특수학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상담활동실태 조사 연구	26.49	-	1	-	27.49 (34.4)
2	초·중·고교, (특수학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상담에 대한 요구 조사 연구	31.49	-	-	-	31.49 (39.4)
3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도움 요구에 대한 연구	1	1	2	-	4 (5.0)
4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상담과정에 대한 연구	1	1	1	-	3 (3.8)
5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상담성과에 대한 연구	3.83	-	-	-	3.83 (4.8)
6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 대상 상담관련 변인 연구	6.5	-	-	-	6.5 (8.1)
7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교수의 상담교육 자료 개발 연구	2.66	-	-	1	3.66 (4.6)
합계		72.97 (91.2)	3 (3.8)	3 (3.8)	1 (1.3)	79.97 (100.0)

주) 표 3, 표 4, 표 5, 표 7의 합계가 80이 아닌 이유는 하나의 연구가 2개 영역으로 평정될 때는 0.5, 3개 영역으로 평정될 때는 0.33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1	2	3	4	5	6	7
초·중·고교, (특수학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상담활동실태 조사 연구	초·중·고교, (특수학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상담에 대한 요구 조사 연구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도움 요구에 대한 연구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상담과정에 대한 연구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의 상담성과에 대한 연구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 교수 대상 상담관련 변인 연구	초·중·고교 일반교사 및 대학교수의 상담교육 자료 개발 연구

그림 8. 연구주제 범주별 연구방법 현황

Fig. 8. Research method frequency by research topic categories.

동향을 분석해보았고, 주요결과 및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연구 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그 수는 매우 적었고, 진행된 연구의 60.9%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였으며 이에 비해 대학에서의 일반교수 상담에 대한 연구는 7.5%로, 매우 미흡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한 학급을 책임지고 있는 담임교사의 역할에서 상담자의 역할이 중요

하다는 인식이 타 학교급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맥락에서 대학교수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담자 역할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낮은데 기인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대학에서 진로지도와 상담 [13,14], 인성교육[20] 등 정의적 측면의 교육이 강조되면서 대학교수의 상담자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공과대학의 경우, 학문적 특성 상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크고 개인의 적성과 전공이 불일치할 경우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지도와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주목할 것은 학생들이 교수의 역할 중,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높게 기대하고 있고, 교수와의 상담을 원하고 있지만 정작 자발적으로 찾아가기는 어려워 한다는 것이다[13]. 따라서 대학에서의 교수들이 학생상담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주제별 현황을 보면, 일반교사 및 대학교수의 상담 관련 7개 연구주제 영역 중 상담에 대한 요구와 실태를 살펴보는 조사연구가 73.8%로였고, 이는 대부분 석사학위논문으로 진행된 연구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그 외 연구주제는 매우 미흡하였고, 전문 연구자에 의한 학술지 논문 역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초·중·고 일반교사 및 대학교수의 상담에 대한 연구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학교상담 실태를 질문하고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기초 연구

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전문연구자의 관심 역시 부족함을 시사하고 있다. 교육전문가로서 일반교사 및 대학교수의 상담자 역할이 중요하다면 이들에 의해 진행되는 상담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까지 진행된 초·중·고 일반교사의 상담관련 요구와 실제 연구는 특정학교나 지역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인데,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공통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도출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초·중·고 일반교사 및 대학교수가 상담하게 되는 상황과 주로 다루게 되는 문제는 전문상담자가 상담하는 상황 및 주요 문제와 다르기 때문에[3] 이들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상담기법에 대한 연구, 상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연구 등도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방법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연구(91.3%)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가 요구조사나 실태조사와 같은 조사연구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는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초·중·고 일반교사 및 대학교수의 상담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상담하면서 겪게 되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도움요구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데, 이를 위해서는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반교사 및 대학교수의 상담에 대한 학문적 논의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일반교수자들의 상담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한점이 있으며 향후에는 이를 보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분석대상 선정에 대한 것이다. 연구방법에 제시하였듯이 최대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6차에 걸친 선정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초, 중, 고, 대학에서의 일반교수자에 의한 상담 연구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분석대상 선정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령, 본 연구에서는 학교상담체제에 대한 연구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연구도 포함시켜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분석방법에 대한 것이다. 동향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될 수 있다. 하나는 본 연구에서처럼 양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가 진행되어 온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초, 중, 고, 대학에서의 일반교수자에 의한 상담 연구의 양적 측면에

서의 동향을 살펴볼 수는 있었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연구문제와 연구결과 등 내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를 위해 자료검색 및 자료분석 타당성 검토에 도움을 준 정태중 선생님(코리아텍 HRD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이재규 교수님(공주대학교)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참고문헌

- [1] J. R. Kang and M. H. Yoen, *School Counseling: Student Guidance*, Paju: Yang Seo Won, 2009.
- [2] K. H. Kim, D. I. Kim, B. W. Kim, H. S. Kim, S. I. Nam, and H. I. Cho, *School Counselling and Guidance*, Seoul: Hak Ji Sa, 2003.
- [3] J. K. Lee, *Group Counselling in School: Practice & Study*, Paju: Kyoyookbook, 2013.
- [4] H. N. Park, "The role of guidance and counseling in faculty system," *Journal of Student Guidance*, vol. 9, pp. 119-134, 2000.
- [5] E. Y. Son, "A study on the preliminary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from the perspective of counselor educa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1, no. 4, pp. 1469-1482, December 2010.
- [6] J. S. Go, "The analysis of characters and training course of career education & guidance teacher in Korea," *Journal of Korea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4, no. 2, pp. 197-217, June 2011.
- [7] S. K. Kim, "Perceived counseling difficultie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2, no. 5, pp. 1473-1488, October 2011.
- [8] H. S. Shin, I. A. Kim, and J. H. Lyu, "Current status of school counseling and the necessity of school psychological services perceived by secondary school teachers,"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1, no. 1, pp. 53-77, November 2004.
- [9] N. S. Kim, Y. J. Oh, and M. G. Choi, "The difference between recognition and expectation on the quality as

- counselor of the class teacher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 14, no. 2, pp. 125-134, August 2005.
- [10] Y. H. Lee, “Analysis on major indices for professors development and expectancy of effects from application of lifelong education principles for professor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2, no. 4, pp. 615-651, December 2004.
- [11] J. G. Lee and H. W. Kim, “A study on Teacher’s recognition for activating career counseling system of professor in Kyunghee University,” *Industrial Research Collection*, vol. 32, pp. 131-149, 2007.
- [12] M. K. Na and H. T. Lim, “The purpose and plan of professor-student counseling system,” *Student Life Study*, vol. 8, pp. 63-77, 2001.
- [13] H. Y. Kang and J. K. Lee, “A study on guide-book of counseling for learning, employment, and career guidance,” Cheonan: Koreatech University Engineering Education Innovation Center, Research Report, 2007.
- [14] S. Y. Jang, Y. S. Jeong, A. R. Jo, and J. B. Lee, “The development of Student’s career guidance for professor,” Seoul: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Research Report, 2014.
- [15] ABEEK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The form of self-evaluation report for educational institution (KTC2015). Aug. 31. 2016 [Online]. Available: <http://www.abeek.or.kr/appraisal/template>.
- [16] Y. E. Kim, “A path analysis of social cognitive factors affecting major choice persistence of university students in science & technology fields,” Master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09.
- [17] C. H. Lim and D. I. Kim, “Satisfaction and needs of female students in engineering with counseling men professors,”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ol. 14, no. 6, pp. 3-15, November 2011.
- [18] N. J. Jo, E. M. Choi, H. J. Choi, and S. C. Jang, “Counseling research analysis: ‘Counseling Study’ Journal Report Published Thesis (Focusing on 2000 to December 2009),”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1, no. 2, pp. 507-524, June 2010.
- [19] H. Jo, K. H. Kim, and J. M. Lee,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career and vocational counseling in Korea: Based 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0, no. 4, pp. 2099-2113, December 2009.
- [20] S. N. Son, “A didactical reflection on character education in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8, no. 2, pp. 11-41, 2014.



강혜영 (Hye-young Kang)_종신회원

1990년 2월 : 이화여대 교육심리학과(문학사)
1995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 석사)
2005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2005년 3월 ~ 현재 : 코리아텍 HRD 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청소년 상담, 상담기법